

## 발전과 공간변화 : 아르헨티나의 경우

### 강명구

본 논문의 목적은 아르헨티나의 공간변화 현상(도시화의 추세 및 지역발전의 양태)을 정치·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부분은 제3세계 공간변화 현상을 분석하는 이론들의 정립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서구의 공간변화 현상과는 상이한 인과관계를 유발시키는 산업화의 유형과 이에 상응하는 농촌변화 유형이 도시 및 지역발전의 패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을 아르헨티나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거대하고 풍요로운 국토를 가진 아르헨티나가 지역적 불균형(개발된 팜과 지역 대 저개발된 팜과의 지역)과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부에노스 아이레스 대도시권역)을 경험하게 된 역사적 전개과정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아르헨티나가 접하였던 위치(농업 생산물 수출과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외적요인과 이러한 요인의 내재화 과정(국가의 역할, 계급구성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정치·경제적 세력관계)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발전론”적인 입장에서 아르헨티나의 공간 변화 현상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공간 변화 현상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주로 도시화 및 지역 개발의 양태(patterns of urb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밑에 깔린 인식론적 배경은 특정 유형의 사회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공간 변화간에는 특정한 인과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보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인식론적 배경에 입각한 이론 구성 (또는 공간 변화 분석틀의 정립)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격한 이론적 부상을 경험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을 기준의 주류 이론인 근대화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극복하고 남미에 있어 농촌변화, 산업화의 유형을 특정 형태의 지역발전 및 도시화 유형과 연계시키는 이론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16세기 이후 최근의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 공간변화 현상의 주된 특징들이 시기 구분별로 서술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 있어 이론 부분에서 제시된 공간변화 분석틀에 기초한 정치 경제학적 방법론이 이용될 것이다.

## II. 제 3세계 도시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을 향하여

그간 한국에 있어 일천한 지역연구의 배경속에서도 많은 연구가 지나치게 정치적인 측면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이에 수반되는 도시화 문제등의 공간변화 현상에는 연구 실적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남미에 관한 연구의 종주국격인 미국의 경우 (지리학자나 도시문제 전문가가 아닌) 정치학자에 의해 연구된 도시문제의 비중은 군부 및 경제문제 연구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80년간의 30년동안 정치학자에 의해 연구된 14개 부문의 주제 중 도시문제는 4 %를 점하고 있으며 70년대 후반 들면서 부터는 외교관계나 경제적 잇슈를 훨씬 능가하는 8%의 비중을 보여왔다. (Dent, 1986:146-147)

지리학자나 도시문제 전문가가 아닌 순수 정치학자에 의하여 이러한 정도로 남미의 공간과 관계된 사회현상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역으로 말하여 남미 지역에 있어 공간 변화 현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암시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 1. 주변부 도시화의 이론적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위 말하는 “개발 도상국”의 도시화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균대화론의 거대한 시각을 속에서 경제성장 및 정치적 민주화와의 관계하에서 진척되어왔다. 즉,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은 급속한 도시화를 이룩하게 되고 이에 상응하여 노동의 분화 및 자본주의적 사회관계가 성립되어 이는 곧 정치적 민주주의 및 경제적 자본주의화로 정착되리라는 예견이었다. 이러한 비전하에서, 발전의 열매는 도시에서 시골로 환류해 들어가며(trickle down) 도시는 사회 발전의 촉매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Berry, 1981; Bienen and Danielson, 1978) 그러나 이러한 예견과 달리 대부분의 주변부 국가군에서 급속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산업화에 근거한 경제의 급속한 성장 대신 경제적 침체가, 도시 중산층의 증대 대신 도시 비공식 부문(urban informal sector)의 급속한 확산이, 정치적 민주주의 대신 독재적 권위주의 정권이 만연되자 과도시화(over-urbanization) 또는 초도시화(hyper-urbaniz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70년대들어 균대화론의 이론적, 실제적 약점이 노정되면서, 균대화 논리에 입각한 도시화 이론도 또한 심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연치 않게도 제 3세계에 있어서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도입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군 내의 새로운 도시 문제 연구동향과 무관치 만은 않다. 1930년대 이후, 특히 2차대전 전후부터, 행태주의적 방법론과 결합된 구조기능 주의의 변창은 도시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회과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이 소논문에서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대한 이론적, 실제적 논의는 이미 여러 곳에서 이루어져왔다. (예를들면, Mills, 1956 & 1959; Martindale, 1965 등 다수)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회중심적

이론인 구조기능주의에 타격을 가한 것은 3세계의 경우 종속이론의 등장이며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경우 국가론의 등장이었다. 도시문제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학문의 흐름은 프랑스 및 영국의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다.

지면관계상 이들 학자군의 풍요로운 논쟁에 관하여는 상세한 논의를 약하기로 하지만 (강명구, 1990) “신 도시 사회과학”(New Urban Social Science) (Walton, 1981)이라고 불리워지는 새로운 학문 정향은 대체로 맑시즘과 베버주의의 팽팽한 혼합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맑시즘으로부터는 생산양식, 계급관계, 자본의 논리 등의 요소를, 베버주의로부터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관료제의 구조와 역동성, 그리고 도시문제를 둘러싼 지위계급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양 전통 공히 도시문제의 근본적 설명을 위해 자본(또는 계급), 국가, 도시 공간의 삼자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즉, 도시문제를 자본주의의 사회공간적 논리의 틀하에 묶음으로해서 일핏 보기에는 상호분리된 제반 도시현상 (이를테면, 교통, 주택, 도시의 서비스공급, 재개발 및 권력구조와 사회운동)이 의미있는 연관성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공간이론의 원용이 제3세계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난 이론적 결과는 발전론과 공간변화 이론의 접목이었다. (Slater, 1978) 즉, 서구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보다 더욱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 도시의 과대 성장 등 제반 공간 변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에 있어 도시 및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는 기존의 근대화론에 입각한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론적 공백이 생겨났고, 이러한 이론적 공백은 국내외적 자본주의의 흐름, 3세계 국가의 역할과 공간변화의 삼자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이론적 시도로서 메꾸어 지게 되었던 것이다. (Canak, 1981) 근대화론 자체에 대한 비판은 이미 낡은 주제(worn subject)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간단히 도시화와의 연계선상에서 두 가지 점만 지적 하기로하자. 첫째, 근대화론은 뿌리깊은 서구 중심적 인식에 기반을 둔 관계로 자본주의가 구체적 역사적 상황하에서 어떻게 주변부 국가의 공간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미흡하다. 둘째로, 이러한 공간 구성에 대한 몇 역사적 이해는 자연히 주변부 사회의 도시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내재된 도시화의 근본적 동인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를 들면, 주변부 농촌 사회의 도시화에 있어서의 역할이라든지 지역적 분업(territorial division of labor) 또는 노동의 사회화 과정(socialization of labor)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은 종속이론 또는 세계체제론적 입장에서 잘 제기되어 왔고, 이들 비판적 이론에 대한 비판도 또한 잘 정리 되어있다. (Palma, 1978) 또한 까르도소 (Henrique Cardoso) 가 잘 지적한 바와 같이 (1977), 종속이론은 미국 및 유럽에서 “발견”되어 제멋대로 “소비” 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단순한 프랑크(Andre Gunder Frank)류의 종속논의는 극복 되어진지 오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도시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두 이론을 검토 비판해 보고자 한다. 종속이론의 부류에 속하는 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남미에 있어서의 도시화는 “종속적 도시화”(dependent urbanization)라

는 개념으로 대변될 수 있다. 여기에는 까스펠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남미에 있어서의 도시화 과정은 남미 발전 양식에 고유한 사회적 모순이 사회·공간적 수준에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 양식은 독점 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독특한 종속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Castells, 1977, 63)

이들에 따르자면, 남미의 도시화는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주의가 불균등하게 공간적 형태로 표출된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여러 형태의 도시문제(도시 실업, 주택난 부족, 비공식 부문의 증대 등)는 종속의 사슬을 깨고 급진적 구조의 변경을 이루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의미에 있어, 이들에게 쿠바는 좋은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제 3세계 특히 남미의 도시화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수위 도시화 현상(Urban Primacy: 각국의 제 1도시인 수도가 제 2 제 3의 도시에 비하여 이상적으로 비대 성장되는 현상)의 분석에 있어 종속의 개념에 근거한 잉여가치 송출의 공간적 유효성이 강조된다. 즉, 켄토(Kentor, 1981)에 따르자면, 남미의 경제적 종속은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대신 서비스업 부문과 도시 비공식 부문의 노동력을 증대시킴으로 인하여 비 정상적으로 도시화가 공업의 성장과 무관하게 증대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위도시는 경제적 잉여가치의 해외 송출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에 근거한 “종속적 도시화”的 가설은 근대화론에서 제기된 “과 도시화”론을 보다 잘 설명하고 근대화론의 몇 역사적 성격을 맹타하는 등 여러가지 공헌한 바가 크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로, 종속적 도시화론은 전 생산체계의 분석에서 시작하지 않고 지나치게 상품 회전의 영역(sphere of commodity circulation)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 설명력의 한계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상품의 부등가 교환(unequal exchange of commodities)이나 원자재 채취 등으로 남미의 도시화를 설명하기에는 1960년대 이후 급변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동적인 영향력을 수용할 이론적 공간이 상실될 위험성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로, 종속적 도시화론은 남미를 너무나 일반화시킴으로 인하여, 비교적 관점에서 주변부 국가의 도시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멕시코나 브라질의 경우가 한국이나 대만의 경우와 다른 것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 체제가 불균등하게 발전되어온 연유도 있겠지만, 양 지역에서의 대내적 사회 구조 및 생산 양식(mode of production)이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발전되어 온 바에 연유함도 크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종속적 도시화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의 동적 발전과정과 (즉, 상품교환 뿐만 아니라 생산관계까지 포함하는) 주변부 사회내의 상이한 사회 구성체의(social formation) 형성과정을 주변부 도시화 과정과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케 된다. 첫 번째의 이론적 보완점은 월러스타인(Wallerstein)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론을 (World capitalist system) 한층 더 보완 시켜 발전시킨 신 국제 분업론(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NIDL)에서 찾아 볼수있고, 두번째의 보완점은 주변부 국가와 주변부 사회 제 세력과의 변증법적 역학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

다.

서로 비슷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세계체제론은 종속이론적 시각에 비하여 몇가지 중요한 이론적 우위점이 있다. (Henderson, 1986; Timberlake, 1986) 즉, 세계체제론은 분석의 수준을 전 세계로 옮겨 놓음으로 인하여 좀 더 넓은 인식의 지평에서 비교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 문제를 고려케 해준다. 당연한 귀결로, 비록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기는 하지만, 상품의 순환 뿐 아니라 생산 체계까지도 분석의 대상에 고려된다. 왜냐하면, 상품의 생산과 상품의 순환(또는 교환)에서 생기는 잉여가치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 축적이라는 동전의 앞, 뒷 면과 같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부는 종속적 구조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종속이론과 달리, 세계체제론은 “반 주변부”(semi-periphery)의 개념 도입으로 반 주변부 국가는 주변의 주변을 공략함으로써 (예를 들면, 한국 기업의 중국 및 동남아 진출)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능한 현실을 이론적 토대위에 정립하였다.

그러나, 세계체제론의 주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주변부가 반 주변부로 전이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중심, 반 주변, 주변은 단지 형식적 분류에 그친 단점이 있으며, 이때문에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의 성격 및 분배의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게 취급되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신 국제분업론”(Frobel, et. al., 1980)이라는 일련의 논의 속에서 잘 보완 되어지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분업질서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였다. 즉, 리카르도(Ricardo)의 비교우위론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에 입각하였던 “고전적” 국제 분업 질서는 몇몇 주변부의 신흥 공업 국가에 있어 “신” 국제 분업 질서로 변환하게 되었다. 19세기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하에서는 중심부 = 공업생산, 주변부= 농산물 및 원자재 생산의 도식이 일반론이었으나 1950년대 이후 공업 자본의 국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후로 이러한 도식은 상당 부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공업 생산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로 특징 지워지는 신 국제 분업질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포드식의 대량 생산 체계(Fordist mass production)가 미 국내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공고화에 따르는 생산비 증가 및 유럽과 일본의 부상으로 특징 지워지는 중심부내의 치열한 공업생산 경쟁에서 유래되었다. (Shoenberger, 1988)

이러한 변화는 주변부 국가의 저렴한 노동력을 겨냥하여 대단위의 공업 설비가 국제적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주변부의 도시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대단위 수출 자유 지역 (Free Trade Zone)을 설립하여 신흥 공업국으로 발돋움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동남아 세아 여러 나라와 카리브해 연안의 조그만 나라들도 이에 합세하였다. 이들 나라는 쌍임금을 이용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나가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에 따르는 한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은 (즉 앞서 지적한 종속이론의 두번째 보완점은) 어찌하여 극동 아세아의 신흥 공업국은 신 국제 분업 질서에 편승하여 이에 수반되는 공간적 변화를 경험케 되었고 남미는 왜 그렇지 못하였느냐는 점

이다. 이 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하에서 다루어질 바와 같이, 주변부 국가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주변부 국가와 주변부 사회 제 세력과의 역학적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변부 국가군의 도시화논의는 이 점에 있어서 “과대 성장 국가론”(Alavi, 1972),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 및 조합주의 이론(corporatism)등의 제반 논의로 부터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팀버레이크(Timberlake)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다.

나의 주장은 세계체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 교훈은 어떠한 사회과학자도 세계체제에 대한 고려없이 거시적 수준의 사회변화를 더 이상 유효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화과정과 같은 거시적 수준의 연구는 세계체제가 공간적 장애물을 뛰어넘고 시간적 경계를 초월하여 여러 수준의 사회관계에 강력한 영향을끼치는 이유로 인하여 도시화 과정과 세계수준의 경제 변화가 접합하는 양태를 조심스럽게 탐구하여야만 가능케된다고 믿는다.(Timberlake, 1985, 3 )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주변부 도시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정립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동적인 변화가 공간적 노동의 분화(spatial division of labor)에 끼치는 외연적 구조의 틀 내에서 각각의 주변부 국가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이 이를 내적으로 어떠하게 관찰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 2. 주변부 도시화 모델

이상의 논의는 매우 높은 추상의 수준에서 주변부 도시화를 분석하는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주변부의 산업화 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농촌변화를 도시화 과정과 접목시켜야 한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동적 변화와 그에 따른 신 국제분업 질서는 주변부의 산업화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농촌 변화를 불러 일으키어 주변부 국가와 사회 제 세력간의 역학 관계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주변부 도시화 과정에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즉, 범 세계적 수준에서 자본의 변화가 특정한 형태의 산업화 및 농촌 변화라는 구조적 외연의 틀을 설정하면 이는 또 다시 주변부 국가 및 사회 세력의 내적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인적 공간인 도시화로 표출된다.

주변부 도시화의 일반 모델을 이하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상술한다. 첫째, 산업화의 형태와 도시화 유형, 둘째, 농촌 변화와 도시화의 유형간의 유기적 상관 관계가 제시될 것이며,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가능케 해 준 국가및 사회 제 세력간의 매개 변수적 요인도 또한 적절한 곳에서 제기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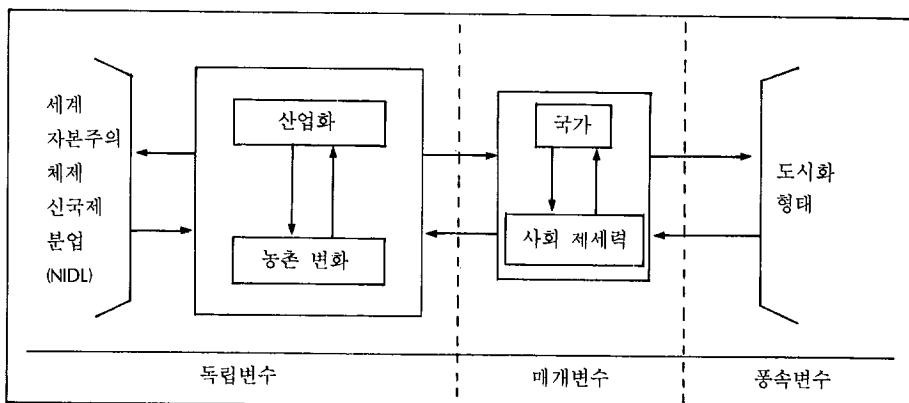
### (1) 산업화와 도시화

산업화와 도시화가 뗄 데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온 사실이다. 산업화는 산업 생산을 위하여 특정한 공간에 인구를 밀집시켜야 할 필요성이 외에도 생산품의 소비를 위한 인구의 집중을 요하며, 또한 규모의 경제 (conditions-of-scale economies)에서 오는 반사적 이익 때문에 동종의 연관 산업은 특정한 공간으로 집중하여 도시화를 더욱 가중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은 비교적 관점에서 재해석 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 특정한 형태의 도시화를 결정짓는 요인은 산업화의 진척 정도(degree)에도 있지만, 무엇보다 산업화의 유형(kind)과 더욱 긴밀한 관계에 있다. (Kang, 1989; chp. 3)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에 있는 국가군이 서로 상이한 도시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우리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와 생산품의 최종 소비시장을 두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의 산업화 모델을 설정할 수 있다. 자본 집약적-수입 대체형(capital intensive-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ISI), 자본집약적-수출 주도형(export promotion industrialization: EPI), 노동 집약적-수입 대체형(labor intensive ISI), 노동 집약적-수출 주도형(labor-intensive EPI)이 그것들이다. 이상의 네 형태 중,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에서 흔히 발견되는 두 유형은 남미의 자본 집약적-수입대체형과 동 아세아의 노동 집약적 수출 주도형 산업화 유형이다.

〈그림 1〉 주변부 도시화 모델



먼저 남미형을 살펴보자. 수입 대체 산업화와 남미의 도시화 형태를 다룬 논의로서는 로버츠(Roberts)의 수렴이론(convergence thesis)을 들 수 있다. 남미의 도시화 형태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위 수위도시(primate city)의 불균형적 과대성장이다. 로버츠에 따르자면 남미 도시의 이러한 특징은 민중주의(populism)적인 정치연합하에서 나타나는

자본집약적 수입대체형 산업화의 구조적 산물이다. (Roberts, 1978, chp. 3) 남미의 국가기구, 산업자본, 그리고 조직화된 도시 노동자로 뭉쳐진 인민연합(populist alliance)은 피차간에 서로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조응하여 수입 대체화 산업을 추진해 나갈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정치 경제적 상황하에서 수위도시의 비대 성장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대공황과(Great Depression) 2차대전으로 중심부 국가의 남미에 대한 종속의 고리가 약해지자 남미의 여러국가는 일차상품의 수출에만 매달려온 대내적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ECLA 학파(Economic Comission in Latin America 또는 CEPAL : Comission Economica Para America Latina)의 주장에 근거하여 독자적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입대체화 산업화로 매진한다. 이런 상황 하에서 도시에 기반을 둔 산업자본은 중심부 국가의 자본가 계급과 달리 정치 경제적 혜계모니를 장악치 못하는 위치에 있자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도시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민중주의 정권을 적 간접으로 지원하게 된다. 즉, 국내 산업 자본은 국가와 도시 노동자로부터 일정의 보호를 약속받고, 국가기구는 경제 성장을 통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며, 조직화된 도시 노동자 계층은 민중주의 정권의 지지에 대한 반대 급부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도시화에 적간접으로 영향을 끼친다. 수입대체화 산업화는 이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내구성 소비재 생산에 주력함으로 인하여 자본 집약적이되고 자본 집약적 상품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안정된 조직적 도시 노동자와 상위 계급의 유효수요를 요구하게되고 결과적으로 산업의 수위도시 집중과 인구집중의 가속적 효과를 냇게 되었다. 멕시코의 경우 수입대체산업화가 한창이던 1960년에 전체 공업생산의 42.7%가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브라질의 경우도 “황금의 삼각지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리오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사우 바울로(Sau Paulo) 및 벨로 호리종떼(Bello Horizonte)의 세 도시를 연결하는 동남부 지역에 산업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극심한 지역간 발전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1968년에 내륙 깊숙히 신수도인 브라질리아를 세우고 아마존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지역 불균형을 의도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이 깊숙히 내재되어 있는 모순점을 해결치 못한 관계로 그 효과는 상상하였던 것보다 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있다.

## (2) 농촌 변화와 도시화

산업화와 도시화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주변부 도시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 산업화의 진척 정도가 중심부에 비하여 미약한 주변부에서는 도시화 현상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가 시골로부터 도시로의 이주(rural exodus)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로버츠의 표현대로 (1978) 주변부 도시는 “농민의 도시”(Cities of Peasants)로 대변 될 수 있다. 또한 “초” 도시화

(hyper-urbanization)나 “과” 도시화(over-urbanization)라는 개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산업화의 정도와 도시화의 정도가 불균등하게 진척되어 도시의 비공식 부문이 급격히 증대하는 현상은 주변부 농촌 사회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그 분석이 어렵다 할 것이다.

농촌 변화와 도시화를 연결시키는 분석의 고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달려 있다. 첫째는 특정한 형태의 산업화를 하는데 있어서 농촌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는, 특정한 농촌의 역할에 상응하는 농촌의 분해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 되는가? (Kang, 1989; chp.4)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먼저 “농민의 성격”(nature of the peasantry)에 대한 고전적 논의들 (예를 들면, Lenin, T. Shanin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지면의 제약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하에서 남미 있어서의 농촌 변화 양식을 살펴 보기로 한다.

남미의 경우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데 있어 우리는 드 장브리(de Janvrey, 1981)의 논의로 부터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남미의 농촌 부문을 특징 짓는 중요개념은 “기능적 이중구조”(functional dualis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이중구조(dualism)라 함은 남미의 농촌 부문이 수출 및 도시의 엘리뜨 계층을 위한 자본제적 부문과 국내시장을 목표로 하여 값싼 주식(staple food)을 생산하는 전통적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남미의 농업생산은 중심부 국가의 농업 수요에 길들여져 있어 전통적 부문의 농업은 관개 및 투자 등에 있어서 자본제적 부문에 비하여 극한 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영양섭취와 식량 자급 자족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능적(functional)이라함은 위에서 이야기된 바와 같은 이중구조가 불가피하게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통적 부문의 농업은 자본주의적 남미 경제에 기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 농업부문은 가족노동의 극단적 착취(over-exploitation)를 통해 자본주의적 농업 부문이 이윤 추구에 맞지 않는 국내시장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을 공급함으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역할 (예를 들면, 노동의 확대 재생산)의 일정부분을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촌의 수입대체화 산업화를 위한 역할은 자명해진다. 자본제적 농촌 부문에서 외국시장에 수출한 농산물의 해외 수지는 자본 집약적 수입 대체형 국내 산업을 위한 자본제 수입에 쓰여지고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1980년대의 외채문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 차관에 의존하거나 또는 중심부 국가의 직접 투자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창출하게 된다.

이러한 농촌 변화에 조응하는 농민의 분해는 소수의 농촌 자본가(rural bourgeoisie)로의 상향 분화와 점증하는 농촌 노동 계층으로의(rural proletarist) 하향 분화, 그리고 이 양 계층 사이에서 그 성격 규명이 아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통적 농민 계층(peasant sector)의 3 부문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Goodman and Redclift, 1982) 전통적 농민 계층이 완전히 분해되어 농촌 노동 계급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도시의 산업 노동 계급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잔존하여 하나의 독특한 농촌 계급의 범주로 남아 있

을 것인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남미의 경우 자본 집약적 수입 대체화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 산업 부문이 이들을 산업 노동자로 완전히 흡수치 못하는데 결국은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농민분해의 양상은 남미 각국내에서도 일치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경험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인 사회 구조의 틀 속에서 재해석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멕시코나 폐루의 경우와 같이 전통적 농민 계층이 강력하게 잔존하여 농촌지역의 자본주의화에 강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의 농촌 자본가 계급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산업화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남미 농업 부문의 기능적 이중구조가 공간 변화에 끼치는 영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적 농업이 발달한 지역은 대규모 관개 시설 및 농업의 기계화에 따르는 부대 설비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따르는 많은 농업 노동자의 존재로 인하여 농촌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중심 거점 도시가 성장할 여지가 높아진다. 둘째, 전통적 농업 부문 지역에서는 농업의 폐폐화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로 (그것이 계절성 이민이든 혹은 영구 이민이든) 도시의 성장이 지극히 둔화된다. 셋째, 전통적 농업 부문 지역의 침해는 불분명한 계급구조의 분해로 계절성 이농 현상이나 점진적 이농현상의 급증으로 도시부문의 비공식 부문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높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여보면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이 도표는 남미에 있어서의 도시화 과정을 이념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각국의 독특한 도시화 과정에 적용시킬 때는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예를 들면, 농민 계급의 역사적 잔존 유무 등)에 따르는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이 모델이 집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역사적 시기는 수입대체화 산업화가 주된 힘을 발휘 하던 시기에 (1930년대 이후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까지) 국한된다는 점이다.

### III. 아르헨티나의 공간 변화

#### 1. 일반적 소개와 공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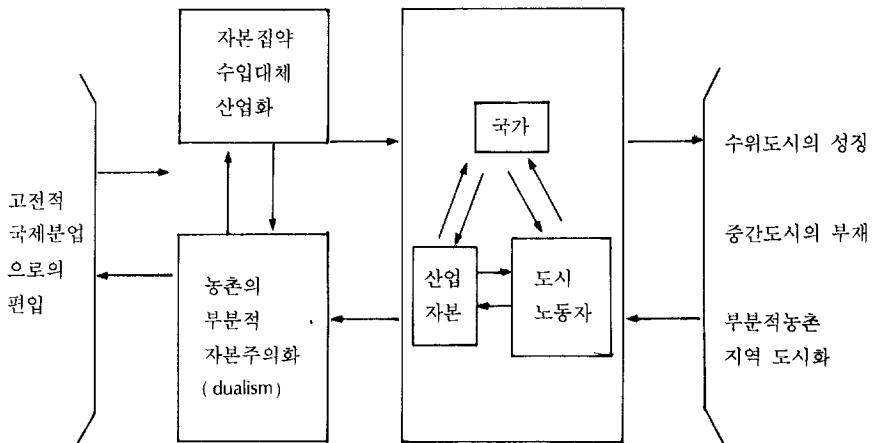
아르헨티나는 매우 큰 나라이다. 1985년 통계에 따르면 총인구 3,060만명, 총 국토면적 2,776,556 평방 킬로미터(한반도의 약 13배)로서 소수의 원주민을 제외하면 총 인구의 약 97 %가 유럽 계통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경수, 1990: 159) 행정 구역상으로는 1개 특별시(부에노스 아이레스)와 22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극 지방에 속하여 있는 지역인 띠에라 멜 후에고는 제외) 이상과 같은 매우 간략한 일반적 소개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 논문의 목적상 우리는 좀 더 사회과학적 입장에 준거한 지역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논자에 따라 지리적 특성, 또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지역을 5개 내지 6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논문에서는 3개 지역으로 대분류하기로 한다. (Manzanal and Rofman, 1989)

### 지도1: 아르헨티나의 지역구분



자료: Scobie, 1971: 9

〈그림 2〉 남미형 도시화 모델



첫번째 지역은 가장 발달되고 인구의 집중이 심한 지역으로서 수도를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과 몇개의 주로 구성된다.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수도를 둘러싼 부에노스 아이레스주, 고르도바 주, 멘도자 주, 산타 페 주) (지도 참조) 첫번째 지역의 핵심적 부분은 흔히 팜파(Pampas) 지역으로 통칭되며 농업 생산물과 산업 생산의 핵심을 이룬다.

두번째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북부와 북서부 지역 및 팜파 지역 일부를(엔드레 리오스 주와 라 뺨빠 주)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스페인의 영향력 하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20세기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침투가 팜파 지역에 비하여 훨씬 덜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있는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지역은 아르헨티나의 남부로서 흔히 파타고니아(Patagonia)라고 불리우며 70년대까지도 개척지로 남아 있을 정도의 개발 후진 지역으로서 리오 네그로 주, 네우겐 주 등 4개주가 있다.

이상과 같은 아르헨티나의 공간구분에 기초가 되는 인식론적 바탕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본질적으로 공간적 차별성을 내포한다는 주장이다. 즉, 자본주의의 발달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항상 공간적 불균등 발전을 내재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 공간을 끊임없이 상품으로 재생산해내는 자본 법칙 일반의 논리에 준한다.

자본의 공간적 차별성 논리를 기초로 하면 결국 세 가지 유형의 공간구획이 가능하다. (Rofman, 1979:15-16) 첫번째 공간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특정 공간에 기초한 사회 구조 전부문에 침투하여 높은 생산성과 그에 수반되는 기술정보를 이룩하여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재생산해내는 지역이다. 두번째 공간은 상기한 바와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침투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전(前) 자본주의적 또는 비(非) 자본

주의적인 역사적 생산양식이 강력하게 잔존하여 있거나 새로운 힘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산업생산력이 미약하고 자본축적의 규모가 미약함 등의 특징이 있다. 세번째 공간유형은 어떠한 유형의 생산양식도 지배적이지 못한 신 개척지(New Frontier)로서 지극히 전통적 생산양식과 고도의 생산력을 갖춘 자본주의적 침투가 인클레이브(enclave)형태로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광물 등의 자연자원의 채취가 주된 생산활동이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특정 공간의 구조내로 침투치 못한 지역이다.

이상의 논의로 부터 아르헨티나의 공간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구별의 준거는 달성되었으나 현실적 수준에서 지역 공간별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는 공간적 차별성의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통한 구체적 지표가 필요하다. 이론적 부분에서의 논의와 논리의 일관성을 맞추는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두가지 구체적 지표가 사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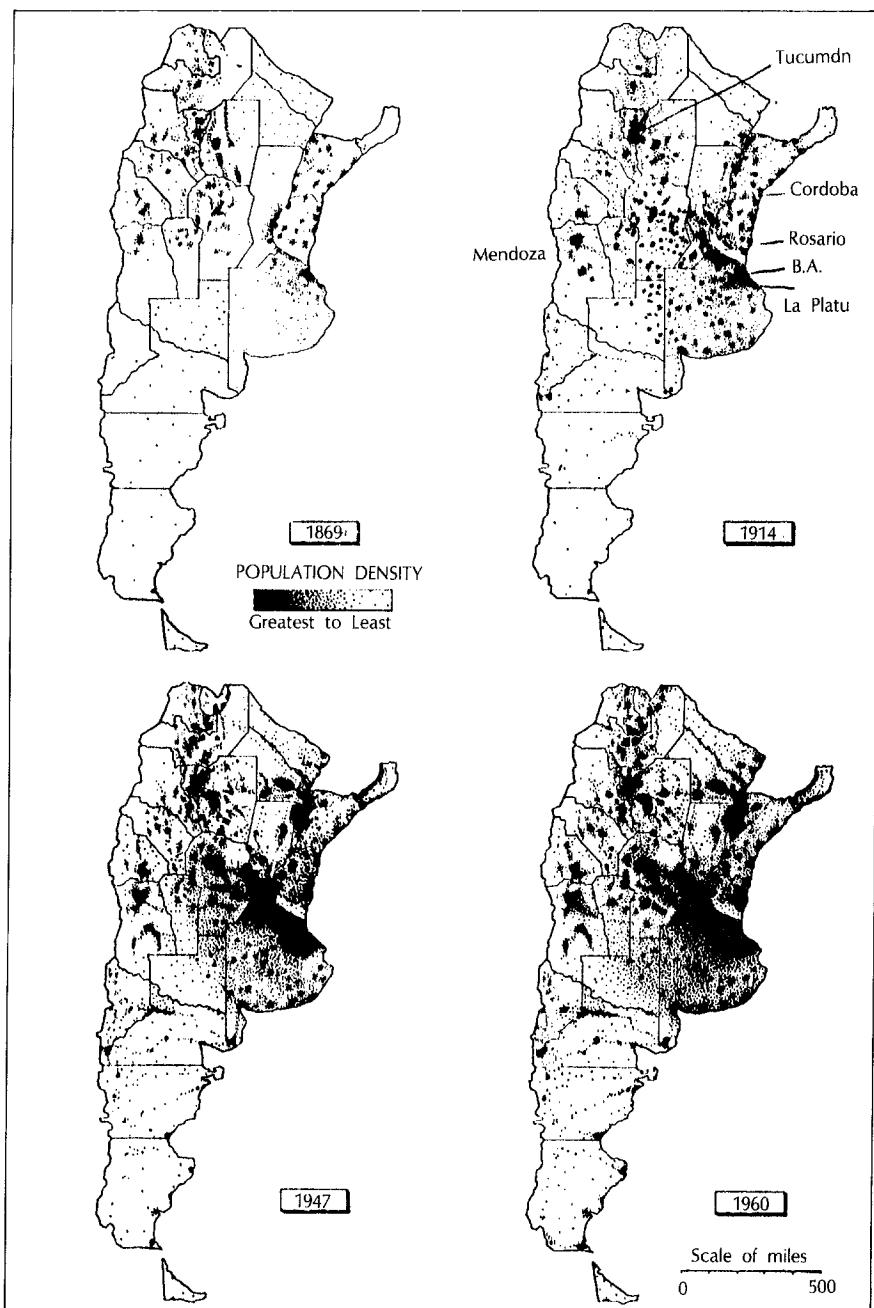
첫번째 지표는 인구의 집중 정도이다. 이 지표는 전통적 도시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인구의 집중 그 자체로서만은 공간 변화의 무수한 사회적 관계의 합축성이 사장되어 버리는 우려가 있으나 일차적 데이터로서 매우 중요하다. 두번째 지표는 인구의 집중을 유발시키는 사회적 변수로서 산업구조에 대한 논의가 추가 될 것이다. 물론 산업구조 자체만의 평면적 논의는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다차원적 사회 관계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나 적어도 인구의 집중으로부터 유발되고 또한 인구의 집중을 유발시키는 설명력의 일차적 기제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두 가지 구체적 지표를 연결시켜 공간적 의미를 부여해주는 매개 변수적 해석은 (즉, 공간변화의 정치 경제적 분석) 아르헨티나 공간변화의 매 시기구분마다 적절한 곳에서 축약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적 차별성에 기인하고 또한 공간적 차별성을 유발 시키는 정치 경제적 합축성이란 결국 (제 2절의 이론적 논의와 결부시켜볼 때) 경제적 측면에서 특정 도시 (지역)가 세계 자본주의체제내에서 점하는 위치와 이에 기인한 도시 및 도시를 둘러싼 경제발전 유형을 의미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특정 생산체계로부터 유발된 계급갈등으로서 국가권력의 쟁취라는 갈등양상을 통하여 특정 도시(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제반 행위를 지칭한다. (Procter, 1982:90)

## 2. 아르헨티나에 있어 시대별 공간변화 양상

어떤 특정국가의 공간적 변화 양상을 특정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독특한 대체적 규칙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흥미롭지만 또한 어려운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 2절의 공간적 분석 이론들로부터 짐작이 가능하듯 적어도 거시적 수준에서의 공간변화는 각 시기별로 아르헨티나가 처해왔던 국제및 국내 정치 경제 구조(크게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작게는 지방적 수준의 계급갈등 양상에 이르기까지)의 반영물로서 이해가 가능하리라는 전제하에 분석이 시도될 것이다. 즉, 아르헨티나에 있어 각 시기별

지도2: 시기별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인구집중



자료: Scobie, 1971: 34

공간 변화의 제 양상은 국제 및 국내 정치 경제적 제 구조 조정 과정과 접합(articulate)되어 특정 조응관계를 나타내는 바 이 연구에서는 5단계로 구분될 것이다.

첫번째 시기는 식민지 시기로서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엽까지로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의 영향권하에서 별로 중요성을 인정 받지 못하던 시기이다. 두번째 시기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 까지로 아르헨티나가 독립하여 건국의 기초를 다지던 시기로서 공간적 중요성의 비중이 내륙으로부터 팜파(Pampa)를 중심으로한 해안지역으로 서서히 이동하던 시기이다. 세번째 시기는 19세기 중엽부터 1930년 까지로 아르헨티나가 영국의 주도하에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적극적 통합을 경험한 시기다. 네번째 시기는 1930년부터 1970년 정도 까지로 아르헨티나가 수입 대체 산업화 및 민중주의 노선 채택을 통하여 대내적 발전전략에 치중하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시기는 1970년대 이래 군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대외 개방형 정책을 전지하며 탈민중주의 노선을 채택해 왔던 시기다.

### (1) 스페인 식민 시기(1532-1776)

이 시기는 현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건설된 1532년(실제로는 1580년)부터 1776년 라플라타강(Rio de la Plata)유역을 중심으로하는 리버 플레이트 준 왕국(準 王國) (Viceroyalty of the River Plate)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및 볼리비아)이 페루 준왕국(Viceroyalty of Peru)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유역의 정치 경제 중심은 페루의 리마와 볼리비아의 아순시온(Asuncion)에 있었고 팜파지역은 거의 대부분 인디안 유목민이 지배했던 시기이다. 팜파지역에 세워진 현재의 두 도시는 아르헨티나 와 산타페(Santa Fe)로서 주로 페루의 광물채취 경제에 종속되어 있었다. 팜파 지역의 역할은 기껏해야 페루 지역의 광물채취를 용이하게하기 위한 노새를 제공하는 정도였다. 기록에 의하면 연중 6만 마리 정도의 노새가 이 지역으로부터 공급되었다고 한다. (Blakemore and Smith, 1983: 385)

페루에서 채취된 금, 은 등의 금속 광물을 카리브 연안을 통하여 스페인으로 송출되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의 팜파 지역 도시는 준왕국의 감시를 피한 밀수의 거점이 되는 정도였다. 이 당시 스페인의 팜파 및 라플라타강 유역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이었다가 보다는 지극히 정치 군사적이었던 것으로서 브라질에 거점을 둔 포르투갈 세력의 남진을 예방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도시 및 지역 발전의 경로도 해안 지역으로 부터가 아니라 북쪽의 페루로부터 서서히 남쪽으로 인구 및 자원이 이동해 나가는 경로를 취하였다. (Scobie, 1971: Chp. 2) 이 당시 아르헨티나 지역의 식민화는 대체로 세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 졌는데, 첫번째는 아순시온에서 빠라나 강(Rio de la Parana)쪽으로, 두번째는 페루에서 꼬르도바 쪽으로, 세번째는 칠레 중부 계곡에서 쿠요(Cuyo)지역으로 서서히 아르헨티나 지역을 옥죄어 오는 형태였다. (Naks, 1971:25)

인디안 숫자를 제외한 당시 162,000명 정도의 추산 인구중 75,000명 정도는 페루 남

부 (현 아르헨티나의 북서부 지역)에, 25,000명 정도가 코르도바, 12,000명 정도가 꾸요에 그리고 단지 22,000명 정도의 인구가 현 아르헨티나의 중심지인 팜파 지역에 모여 살았다. (Crossley, 1983: 385)

## (2) 전국시기 (1776-1852)

두번째 시기의 특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과도기였으며, 공간 변화의 관점에서는 내륙으로부터 팜파지역의 해안 지역으로 공간 변화의 축이 이동하였던 시기이다. 1700년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의 왕위권을 계승한 유럽에서의 여파로 남미 대륙에서도 식민지 개혁의 일환으로서 스페인 세력이 서서히 퇴조하였는 바, 1776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점으로 한 리버 플레이트 준왕국이 생겨났다. 이 준왕국의 탄생으로 현재의 아르헨티나 지역은 페루등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른 식민지 제국과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세계무역에 개방된 효과를 가져오게 된 역사적 사건은 그러나 리버플레이트 준왕국 내부의 갈등 마저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즉,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완전독립을 통한 자유무역의 쟁취를 주장하는 그룹과 스페인계 상업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잔존 세력간의 갈등(좀 더 정확히 말하여 토착 백인인 고릴료 대 스페인인)은 결국 1810년 아르헨티나의 독립을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일단 독립이 성취된 후에도 신생 아르헨티나의 내부 진통은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이 갈등의 핵심은 자유 상업 자본가들에 의해 주창된 중앙집권식 정부체제 대농업자본에 의존하는 연방주의자들의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곧바로 정치적 대결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즉, 연방주의자 간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자치권 문제를 놓고 이해 관계가 대립되었다. (Skidmore and Smith, 1984: 71)

이러한 내부진통은 아르헨티나의 민족주의자이자 동시에 악명 높았던 독재자 로자스 (Juan Manuel de Rosas)의 등장으로 일단 평정되었다. 철저한 반 외세주의자였던 동시에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토지귀족(estancieros)의 이익을 대표했던 로자스의 통치하에서 아르헨티나의 공간 발전 중심축은 확연히 팜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안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목축업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의 개발은 (원주민이었던 인디안의 노동력에 의존하여 농업 생산을 위주로 했던 멕시코나 페루의 경우와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또한 세계에서도 가장 비옥한 토지중의 하나인 팜파지역의 토질에 힘입어 일로 번창하였다. 이들 초기의 목축업자들은 원주민 노동력의 착취를 통한 집약적 농사대신에 드넓은 평원에 산재해 있던 적은 숫자의 인디안 사냥을 통한 목축지 확대로 그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팜파지역의 목축업은 19세기들어 유럽으로부터의 육류수입증가와 육류 가공 처리 기술의 발달로 더욱 번창하였다. 즉, 살라데로(Saladero)라고 불리우는 소금에 절인 육류 가공 공장이 해안을 따라 형성되었고 더더우기 육종 교배 기술의 성공은 육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Crossley, 1983:388)

이러한 해안 지역의 성장이라는 동전의 뒷면은 내륙지역의 지속적 쇠퇴로 나타났다. 1750년에 아르헨티나 수출의 90%가 내륙으로부터 생산되었으나 일세기후인 1850년에 이르러 15%의 수출만이 내륙으로부터 생산되었다. 동시에 해외의 문호 개방으로 해안 지역의 내수시장을 해외자본에 상실하게 된 내륙 지방은 그 생산력의 기반을 거의 빼앗기게 되어 1800년부터 1869년 기간중 해안 지역의 인구는 연 3%로 증가하였으나 내륙지역은 1.9%로 둔화하였다. (Naks, 1971:26) 1855에 이르러 이미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전 인구의 17%를 점하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주까지 합치면 약 25%의 아르헨티나 인구가 팜파 해안 지역에 집중하였다. (Crossley, 1983:390)

### (3) 세계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시기(1852-1930)

1810년 독립을쟁취한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1880년에 이르러 아르헨티나 연방의 일부로 편입되기까지 합의된 단일의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다. 무려 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정치적 혼돈의 와중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주류를 이룬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였다. 로자스의 몰락후 1853년에 채택된 연방헌법은 중앙집권주의자와 지방분권주의자 사이의 타협의 산물로서 채택된 것 이었다.

1853년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된 자유방임주의는 팜파를 중심으로한 해안지역의 생산물이 유럽(특히, 영국)의 증가하는 수요와 맞물려 아르헨티나는 유사이래 최대의 사회적, 지리적, 경제적 지각변동을 경험하게된다. 이 기간동안의 변화는 20세기들어 아르헨티나의 공간변화를 특징지우는 지역간 불균형 및 차별적 도시화의 기초를 이루었다. 현재의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공간구조는 이 당시에 이미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커다란 변화였다. 예를 들자면, 1895년 당시의 6대도시(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 꼬르도바, 라쁠라따, 멘도자, 뚜꾸만, 산타페)는 오늘날에도 순위의 변동없이 6대 도시로 남아 있다. (Ferraro, 1973:67-74, Balan, 1976:154)

물론, 이러한 주장은 1930년대 이후 가속화된 수입대체화 산업화가 아르헨티나의 공간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확실하게 1930년대 이후의 산업화는 공간적 차별성에 기초한 도시화를 가속화시켰으며 산업화 하에서의 공간변화 메카니즘은 다음 절에서 설명되어질 바와 같이 19세기 말엽 1차 산업 중심의 공간변화 메카니즘과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산업구조가 (농목축업 중심 대 공업중심) 동질의 공간 변화를 (즉, 국토의 불균등 발전 및 도시의 차별적 성장) 계속적이며 가속적으로 유지시켜온 역사적 사실은 결국 아르헨티나가 세계 자본주의체제내에서 점하였던 역할과 이 역할내에서 아르헨티나의 농업부문 역할이 어떻게, 왜, 변하여 왔는가를 해명하여야만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19세기말엽 아르헨티나의 공간구조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영국의 경우 산업화의 심화로 인한 공업 생산품 원료(주로 양모)에 대한 수요와 저렴한 가격으로 도

시노동 계급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저렴한 곡물 및 육류에 대한 수요가 아르헨티나의 팜파지역을 거대한 수출주도형 농업지역으로 바꾸어 놓았다. 때맞추어 성행했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각종 기술적 진보 (예를 들면, 증기선의 대서양 운항, 냉동육류 가공 처리 기술의 발달 등)가 아르헨티나의 팜파지역을 적극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 이후 정치적 내분을 농업 자본가계급의 해제모니 장악과 제도적 협상(연방주의 채택)으로 일단 정리한 아르헨티나가 세계 자본주의체제내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었다. 특히 19세기 말엽에 들어서면서 증가되기 시작한 곡물류 생산은 목축업과 달리 기계화 수준이 미약했던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많은 양의 노동을 필요로 하였으며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해안 지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각종 사회 간접자본(특히, 철도)과 금융기관등의 자본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자본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왔고, 노동의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이민을 통하여 해결되었다.

영국의 자본은 내륙철도 부설과 팜파지역에서의 농업혁명 및 기간산업의 확충에 투자되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외국자본은 농업 그 자체보다는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되었다. 1857년의 통계를 보면 영국의 경우 30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으나 1910년에 가서는 2억 9천만 파운드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였다. (Crossley, 1983:400) 철도는 처음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로사리오의 두 기점을 중심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개통되었다. 1880년대 들면서 멘도자, 고르도바, 산타페가 로사리오에 연결되고, 바이아 블랑카(Bahia Blanca)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연결되면서 거의 모든 주요도시가 철도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철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중간급 도시들간의 배타적 연결은 매우 미약하여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있어서도 극심한 대외 지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Scobie, 1971: 137-148) 결과적으로 철도의 부설은 팜파지역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퍼져서 뚜꾸만과 멘도자의 경우를 예외로 한다면 내륙 지방으로의 철도 확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었다. (Crossley, 1983: 401 그림 9.3) 따라서 수출될 농산물들은 로사리오, 바이아 블랑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세도시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서도 수입시장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결국은 모든 철도의 마지막 기착지가 되어 버렸다.

20세기 초엽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아르헨티나를 일본과 더불어 예상 강대국의 명단에 끼워넣게 된 것의 원동력은 역시 팜파지역에서의 농업혁명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영국 자본과 남 유럽계 이민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이지만, 이렇게 제공된 노동과 자본을 여하이 내재화 시켰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한 팜파지역내의 농업이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도록 구조지워진 농촌의 생산양식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팜파지역에서의 농업혁명을 주도한 것은 곡물 생산과 목축이었다. 19세기 말엽까지는 육류를 비롯한 목축물의 수출이 곡물 수출을 앞질렀으나 20세기 들면서 곡물수출이 목축물 수출을 훨씬 앞지르게 되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899년의 경우 농목축 생산물의 총합이 수출량의 97%를 1910년의 경우 96%를 점하는 완전한 농업 수출형 의존 국가로 바꾸어 놓았으며 동시에 곡물수출의 비중이 더욱 높아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축의 경우 1850년대부터 프랑스산 메리노종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양질의 양모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으며 팜파지역의 철조망 구획은 (1907년까지 총 1백만 Km의 철조망이 설치되었다!) 더욱 더 효과적인 목축을 가능케 하였다. 20세기 들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육류소비 증가와 냉동선의 발달 및 냉동 육류 가공공장의 설립으로 육류의 수출 비중이 서서히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부폐방지를 위한 각종 육류 냉동공장이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하는 팜파 지역에 설립되었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건조되거나 염장된 육포는 주로 내륙 지방에 위치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를 더욱 벌려 놓게 되었다. (Crossley, 1983:406-407)

반면에 팜파 지역에 있어 곡물 생산 증가는 목축업 발달의 부산물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미개척된 넓은 팜파 평원에서는 곡물류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농촌 노동력이 매우 미약하였고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이 가능한 목축업이 대토지 소유계급의 이해관계와 더욱 밀착되었다.

그러나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남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은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남유럽의 대기근을 피하여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온 이민 노동력은 로사리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을 통하여 주로 팜파 지역에 정착하여 대토지 농장의 소작농이 되었다. 목축을 위한 농토 개량과 농토 개량을 통한 목초(주로 알팔파) 재배에 큰 이해 관계가 있던 농장주들에게 있어 이민 소작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목초지로 개간할 땅을 분할하여 주로 이탈리아계 이민 소작농에게 분할 대여해 주고 반대로 소작지에서 이민 소작농은 개간을 통하여 밀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보통 3년의 계약이 끝나갈 경우 알팔파 목초로 소작지를 경작해 놓으면 되는 소작농 형태가 성행하였다. 소작농은 댓가로서 생산된 곡식의 반을 대지주에게 주고 지주는 종자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주는 농토와 종자만 제공하고 나머지 과정은 소작인이 모든 책무를 떠맡게 되는 것이었다. 노동력밖에 소유 하지 못한 이민 소작농들은 한편으로는 생존하기 위하여 다른 한 편으로는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얼마간의 자본축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872년과 1895년의 23년 기간동안 팜파지역에서의 경작면적을 15배로 늘려 놓았다. (Scobie, 1971:117-119)

이와같이 팜파지역의 개발을 담당한 이민 노동은 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계의 유럽인이었다. (김현창, 최윤국, 1990) 볼리비아나 페루등지로부터의 이민 노동계급은 주로 팜파 이외의 내륙 지역에 거주하였던 반면 유럽계 이민은 초반기에 팜파지역에 거주하다가 근처의 소읍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지의 대도시로 재이동 하여 소규모 생산활동이나 서비스분야에 종사하였다. 가장 높은 이민 정착율을 보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1914년 수도인구의 50%가 외국인 이었다. (김현창, 최윤국, 1990: 138-139) 이 계층은 도시 중간계급이나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토착 산업자본을 형성하여 1930년대이후 수입 대체화 산업시기에 뾰르떼뇨(porteno)라고 지칭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의 토

〈표 1〉 1899년과 1910년 아르헨티나의 수출품목 구성비율(%)

	1899	1910
목축 생산	62	43
육류	3	10
피혁	13	11
생육(生肉)	5	1
양모	39	16
곡물 생산	35	53
밀	32	50

자료 : Crossley, 1983: 409.

작 백인 지주 계급에 대항하여 민중주의 정치 노선의 핵심적 계층을 이루게 된다.

1857년부터 1930년 기간동안 340만명의 이민이 아르헨티나에 정착하였는 바 이는 미국에 다음가는 엄청난 숫자였다. 1850년 당시 1백만명이었던 아르헨티나의 인구가 80년 후인 1930년에 1천 2백만명으로 12배 증가하였는데 이중 4백만명이 순 이민으로 구성될 정도로 이민의 숫자는 아르헨티나의 인구 증가에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Crossley, 1983: 396-399)

미국의 경우와 달리 유럽계 이민이 농촌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이나 무엇보다도 이들 이민은 도착시 정착할 유용한 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거나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여 정착할 농촌지역의 사회구조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팜파 지역의 비옥한 토지는 기존의 대토지 소유계급(estancieros)에 분할 소유되어 있었으며 인디안 학살을 통한 사막정복(Conquest of the Desert: 1879-1883)으로 새로 취득된 팜파 이외의 지역은 아르헨티나형 흄스테드(homestead)를 통하여 목축업자나 투기꾼의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농촌에 정착치 못한 외국 이민 노동자는 도시로 몰릴 수 밖에 없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출경제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어 건축 및 서비스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 자리는 주로 유럽계 이민으로 메꾸어졌다. 비록 당시 아르헨티나에 있어 산업화의 수준이 유럽에 비하면 보잘것 없었고 주로 농산물 가공업이나 육류 가공산업 정도에 머물렀지만 수도를 중심으로한 산업화는 괄목할만하여 1895년에서 1914년사이 8배나 증가하였다. (Cortes Conde and Gallo, 1967: 77-83)

이와같은 정치 경제적 배경하에서 인구는 로사리오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축으로하는 팜파 해안 지역에 밀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 이후까지 계속되는 상승효과를 나타내게 되었다. (지도 2 참조) 이른바 스코비(James Scobie)가 지칭하는 “두 세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유하고 수출형 농업에 의존하며 도시화된 인구 집중의 팜파 해안 지역과 내륙에 속하여 인구가 회박하고 가난한 전통지역인 또 하나의 아르헨티나가 바로 그것이다. (Scobie, 1971: chp. 6)

물론 이러한 관찰이 지방적 수준의 도시화로 표현되는 소규모 공간적 역동성을 완전

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내륙의 지방적 수준에서 도시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 바 북부의 뚜꾸만과 서부의 멘도자가 이 경우에 속한다. 발란(Jorge Balan)이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초엽 사이 농업 발전에 관계된 뾰블라도(poblados)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도시 계층이 생겨나 20세기 중간급 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 내륙도시의 다이내미즘도 무시할 수 없다. 발란이 분석하고 있는 멘도자와 뚜꾸만의 경우, 전자는 포도주 후자는 설탕산업의 성장이 활발하여 20세기 후반 이후까지 예외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륙도시의 예외적 성장도 발란의 타월한 분석대로 팜파지역 농업자본의 수요 충족이라는 메카니즘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이 두지역의 생산양식이 중앙의 지배적 생산구조와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가하는 문제 및 생산양식 접합의 권력관계(즉, 지방호족과 중앙세력을 간의 관계)를 분석해야만 뾰블라도스의 예외적 성장이 보다 잘 분석될 수 있다. (Balan, 1976)

발란이 주장하는 지방적 수준에서의 소규모 도시 네트워크는 바쁘나르스키(Vapnarsky)가 연구한 아르헨티나의 도시 시스템과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의 조사에 의하면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전체 도시중에서 차지하는 (인구 집중정도 기준) 수위 도시화(首位 都市化:urban primacy) 정도는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도시는 매우 균등한 도시 순위별 분포(urban rank-size rule)를 보여 주고 있는 바 이는 곧 농업지역에서의 중간급 소규모도시 네트워크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아르헨티나에 있어서의 수위 도시화 양상은 일차적으로 전국적 수준에 있어 아르헨티나가 월등한 수위도시율을 나타내고 이차적으로 각 지방적 수준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수도를 중심으로 다시 수위화 현상이 나타나는 집단 수위 도시화(group primacy)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Vapnarsky, 1975)

요약하자면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1930년 대공황이 아르헨티나에 결정적 여파를 미치기 전까지 아르헨티나는 서구와 달리 농업위주의 사회가 1920년대에 이미 40% 이상의 높은 도시화율을 이룩하였던 것이고 인구 구성은 전통적 토착백인인 그릴로 및 혼혈 메스티조(crillo and mestizo)가 대다수의 유럽계 백인과 혼재하는 인종 용광로로 변하였으며 안데스산맥 기슭의 미미하였던 천통적 농업 식민지가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주요한 농업 생산국으로 자리매김을 받게 되었다.

#### (4) 수입 대체화 산업시기 (1930 - 1970)

1930년 대공황 이후 아르헨티나는 산업구조면에서 새 조정기를 맞게 되고 이의 여파로 인한 정치적 대변혁을 경험하게 된다. 흔히 많은 연구가 피상적 수준에서 1930년대 이래 아르헨티나의 수입 대체화 산업화를 단절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으나 앞서의 지적대로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0년대 이전에 아르헨티나는 이미 산업별 국내 총 생산에 있어 제조업 부문은 농업부문에 비금가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화의 양(진척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질(산업화의 구조적 성격)의 문제에 있다할 것이다.

〈표 2〉 아르헨티나 산업별 국내 총생산 (GDP) 비율(%) (1925-9부터 1970-4까지)

	1925-9	1950-4	1960-4	1965-9	1970-4
농업	27.1	18.8	16.4	15.0	12.3
광업	0.2	0.6	1.4	1.6	1.6
제조업	23.8	27.8	31.3	34.2	37.3
공·공설비	0.5	1.0	1.5	2.0	2.5
건설	3.9	4.5	3.7	3.6	4.3
상업	23.3	18.8	18.7	17.9	18.0
교통	6.3	8.3	7.8	7.6	7.3
금융	3.6	4.2	3.9	3.7	3.5
서비스	11.3	16.0	15.3	14.4	13.2

\* 공공 서비스는 수도, 가스, 전기의 총합

자료: Crossley, 1983: 413

〈표 3〉 아르헨티나의 취업 인구별 분포 (%) (1925-1969)

	1925-9	1940-4	1955	1960	1965-9
농업	35.9	33.3	26.1	18.6	16.8
제조업	20.8	23.7	22.5	26.9	24.2
3차산업*	38.4	39.0	45.7	47.7	52.0
광업/건설	4.9	3.9	5.6	6.8	7.0

\* 3차산업은 유통서비스, 교통, 공·공설비 포함. 자료: Crossley, 1983: 442

구조적으로 오랜동안 대외 수출 의존형 농업 생산국이었던 아르헨티나에 있어 악화하는 교역 조건(terms of trade)은 대공황이라는 기폭제를 통하여 상징적 폭발을 하였지만 내재적 모순구조는 이미 1930년대 이전부터 서서히 정착되어 오고 있었다. 교역 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1929년에는 국내 총 소비재 수요의 52.9%가 수입에 의존하였던 것이 1938년에는 34.9%로 감소하였으며 수입량의 부족분은 국내 생산품으로 메꾸어졌다. (Corradi, 1985:39) 이른바 단순 소비재제품목에 치중한 초기 수입 대체화 산업화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생산품목으로는 직물류, 피혁, 식료품, 단순 화학재, 유리 및 도자기 산업등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집약적인 품목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1940년대 후반들어 폐론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내구성 소비재(consumer durables) 생산을 위한 자본 집약적 산업화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즉, 고무,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제품 등의 생산으로 냉장고, 라디오 및 각종 생활용품의 생산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0년대 까지 제조업 부문 종사자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1955년의 경우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바 이는 〈표 2〉에서 제조업부문이 국내 총 생산에서 점하는 비중이 점차로 늘어가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단위 생산당 노동보다 자본의 비율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대공황 이전의 초보적 산업 생산을 산업화 1기로, 초기 수입 대체화 산업화를 산업화 2기로 친다면 1940년대 후반에서부터 아르헨티나는 산업화 3기로 진입한 것이다. 산업화 1기에 대한 논의는 전술한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초기 수입 대체화 산업 시기인 2기 산업화 시기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1930년 대공황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인 초기 산업화의 주된 특징은 소규모의 지방자본에 의존하고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지역 노동력을 흡수하였던 노동집약적 산업화였다는 특징이 있다. (Roberts, 1976: 66) 공장의 소재지도 광역 수도권 지역 뿐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었다. 디 페야(de Tella)가 “플랜테이션 식 공업화”라고 개념화 하였듯이 지방적 수준의 초기 산업화는 설탕, 포도주, 석용유, 면화등 각 지역 특산물의 가공제조에 그치는 초보적 소비재 생산에 있었으며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지극히 가부장적인 요소 등 전근대적 경영방식이 마치 플랜테이션 농장운영의 그것과 흡사할 정도로 통합되지 못하고 (disarticulated) 산업의 파급효과도 미미한 것이었다. (di Tella, 1965)

반면, 2차대전 이후, 특히 폐론의 민중주의 정권하에서 취하여왔던 산업화 정책은(산업화 3기) 내구성 소비재 위주의 자본 집약적인 것이었으므로 유효수요가 몰려있는 팜파 지역의 대도시, 특히 수도권 중심의 지역에 많은 공장이 밀집해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유효수요는 민중주의(populism)정권을 지탱해 준 주요 지주인 도시 노동계급으로서 주로 남유럽으로부터의 이민으로 구성되어 있던 도시 중간계층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산업화는 비록 초보적 수준이었지만 지방적 수준의 산업화를 가능케했던 제 2기 산업화와 달리 공간적으로도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유발할 수 밖에 없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4년에서 1947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있어서는 수도 및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를 중심으로 한 팜파지역에 있어서 뿐아니라 츄부뜨(Chubut), 라팜파(La Pampa), 리오 네그로(Rio Negro), 산타 끄루즈(Santa Cruz)주 등 몇몇 주변부 지역의 주에 있어서도 인구비례에 대비한 제조업 부문 종사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1947년에서 196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에는 (제 3기 산업화) 아르헨티나의 성장축인 팜파지역을 제외하면 인구대비별 산업 종사자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현상이 보인다. (예를들면 츄부뜨, 라팜파, 리오 네그로, 산타 끄루즈 주등) 한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우 인구증가율 뿐아니라 제조업 종사자의 숫자도 현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다.

일견, 이러한 현상은 수도의 상대적이며 가속적 침체로서 해석되어 아르헨티나 공간 구조의 균형적 성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의 과밀현상으로 인한 팜파지역내의 근린 수도권으로 생산활동이 옮겨진 것으로 해석함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즉, 1946년과 1963년 사이 수도권 지역의 국내 총 생산 점유율은 8.3% 감소하였지만 팜파 지역은 5.4% 그리고 코르도바주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지역은 3.1% 각각 증가하여 근소한 차이지만 (0.2% 증가) 증가하였고 기존의 발전지역이었던 제 1

〈표 4〉 제 2 기와 제 3 기 산업화 기간중 인구 및 제조업부문 종사자의 지역별 변화 비교

	도시인구		제조업 종사인구	
	1947/1914	1960/1947	1948/1914	1960/1948
전국	138.9	45.3	191.9	57.9
수도	89.2	- 4.3	222.4	- 17.3
Buenos Aires	171.3	88.8	274.9	132.7
Catamarca	191.4	49.2	- 11.1	115.3
Cordoba	161.1	54.0	177.0	137.3
Corrientes	63.9	33.3	- 48.8	139.0
Chaco	21.5	58.5	181.2	122.9
Chubut	852.7	62.8	3,451.4	- 37.4
Entre Rios	163.5	- 19.7	9.1	112.3
Formosa	504.7	130.8	178.3	233.7
Jujuy	318.8	93.7	20.8	165.9
La Pampa	198.5	38.8	257.9	54.0
La Rioja	235.2	57. 2	- 28.6	91. 7
Mendoza	233.4	77.8	109.2	66.0
Misiones	352.2	168.5	137.7	268.7
Neuquen	814.6	167.9	785.5	44.7
Rio Negro	1,041.3	239.6	822.4	93.3
Salta	278.7	96.8	113.8	98.7
SAn Juan	411.2	59.3	63.0	119.2
San Luis	94.1	39.5	42.5	113.3
Santa Cruz	323.2	217.5	863.0	52.0
Santa Fe	131.4	47.2	144.9	55.0
Santiago del Estero	238.0	36.0	81.3	118.2
Tierra del Fuego	--	--	--	--
Tucuman	97.2	40.6	77.0	81.7

자료: Ferraro, 1974 : 81

지역이 총 국내 생산의 86.9%를 점하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리하여, 수도권과 팜파 지역 및 고르도바주 중심의 중부지역등에 산타 페(Santa Fe)와 라쁠라따(La Plata)의 두 도시를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인구 및 산업설비 등의 집중이 이루어져왔다.

이상과 같은 산업의 급성장과 구조적 변화 속에서 19세기 이후 아르헨티나를 세계 자본주의체제내로 급격히 편입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쇠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농업이 점하는 총생산중의 비율이나 농업종사 인구수 모두가 감소하였다. 1930년대 이래, 특히 2차대전이후 제조업부문의 구조적 재조정 시기에 아르헨티나의 농업이 짚어져야했

〈표 5〉 제조업 부문 국내 총 생산의 지역별 비율 (1946, 1963)

	1946 (a)	1963 (b)	a - b
전 국	100.0	100.0	- + 0.2
제 1지역	86.7	86.9	- 8.3
수도권	67.0	58.7	+ 5.4
팜 파	16.1	21.5	+ 3.1
중 부	3.6	6.7	- 0.3
제 2 지역	10.9	10.6	+ 0.1
북서부	4.3	4.4	- 0.3
북동부	2.8	2.5	- 0.1
꾸요 (cuyo)	3.8	3.7	+ 0.1
제 3지역	2.4	2.5	+ 0.1
꼬마우에	1.8	1.9	-
빠따고니아	0.6	0.6	

자료: Ferraro, 1973 : 82에서 재분류

던 역할은 드 양브리(de Janvrey)가 이야기하는 “기능적 이중구조(functional dualism)”의 전형적 케이스였다. (de Janvrey, 1981)

즉, 도시의 인구집중과 산업화를 통한 노동계급의 급성장으로 인한 국내소비용 곡물을 보다 싼값에 제공해야 하는 동시에 수입 대체화 산업화를 위한 자본재(capital goods) 수입을 농산물의 해외 수출대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짊어져야 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떨어지고 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해인 1952년 전통적 농업생산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Corradi, 1985:66)

아르헨티나의 농업이 처했던 위기는 매우 구조적인 것이었다. 폐론의 민중주의 정권이 취한 대농업정책의 핵심은 “아르헨티나 무역 진흥공사”(IAPA : Instituto Argentino de Promocion del Intercambio)의 설립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이 기구는 전형적으로 농업자본의 희생위에 산업자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표면적 목적은 국가가 일정가격으로 농산물을 수매하여 (대부분에 있어 국제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농산물 가격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르는 불안정 요소를 흡수해 주는 완충역할에 있었으나 실제로 이 기구가 행한 역할은 국제시세와 국내시세의 농산물 가격차에서 생기는 이윤을 국내 산업 자본에 제공하여줌으로써 수입 대체화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Corradi, 1985: 64) 따라서 폐론의 민중주의 정권이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무너진 후 이 기구가 폐지되었음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2차대전이후 경제부흥에 매진하여야만 했던 유럽 각국에 농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상기한 바와 같은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중국에 있어 폐론의 이러한 정책은 오래 지탱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독점적 이윤의 확보를 탈취당한

농업 자본가 계급은 더 이상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농업생산이 격감하였으며 또한 독점가격의 차액을 전유한 국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은 농촌 자본의 독점적 이윤 전이를 통한 산업화정책을 실패로 이끄는데 한 몫을 하였다. 한가지 극단적인 예를들면, 1945년에서 1946년 까지의 기간동안 정부 총 투자의 50%이상이 전쟁의 위협이 거의 없었던 아르헨티나에서 국방비 증액에 투자되었다.(Silverman, 1965: 251) 더욱이나 1940년대 말엽의 대가뭄과 서구의 생산성 회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의 하락은 농업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1930년 전까지 농업의 구조적 모순은 국제경기의 호황이라는 주요 요인외에도 유럽으로부터의 값싼 이민 노동력 공급, 미개척지로의 농토확장 및 신기술 개발 등 몇가지 잠재적 탈출구를 통하여 해결 가능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정책의 산업편중으로 인하여 농업노동인구는 도시로 방출되었으며, 이를 보상키 위한 농업의 기계화도 정부의 산업투자 우선으로 지지부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극약 처방은 토지 개혁이라는 혁명적 방법이었으나 전통적 기득권을 행사하여온 농업 자본을 봉괴시키는 작업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파국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이상의 산업 및 농업의 구조적 변화로부터 유추되는 인구의 이동 상황에 따른 공간 변화 현상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우선 전국적 수준에서 공간 변화 현상을 살펴보면 두 가지 주된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모여들었다. (물론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구 역상으로만 볼 때는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구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보면 인구의 증가가 분명하다.) 둘째,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중간급 대도시(인구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역시 지속적 성장을 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에서 1960년 사이 수도권은 6%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중간급 대도시들도 (50만—100만) 같은 기간동안 5.9%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3개의 중간급 대도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로사리오, 꼬르도바, 라쁠라따이다. 반면에 인구 10만에서 50만 사이의 중간급 도시는 1947년에서 1970년 사이 고작 0.7%의 인구증가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적 수준에서의 인구이동을 통한 공간변화 현상을 고찰해 보자. <지도 2>에서 잘 보여지는 바와같이 인구는 팜파지역에 주로 운집해있고 북동쪽의 꼬리엔페스 및 산타페를 중심으로 부차적으로 집중하여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지역내에서는 지역내 대도시로 각지역간에서는 발전의 중심축인 팜파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결국은 제 2지역에서 제 1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erraro, 1973: 78) 이러한 현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바쁘냐르스키가 지적한 집단 수위 도시화(group primacy)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각 지역내에서나 전국적 수준에서나 단계별로 더욱 더 발전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집중의 공간별 가속화 현상이 목도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아르헨티나에 있어 1930년대 이전의 세계체제 편입 시기와 1930년대 이후의 수입 대체화 산업화 시기가 표현하는 공간변화 현상을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6) 도시 규모별 인구 분포 변화 추이(1914, 1947, 1960, 1970)

	1970	1960	1947	1914
수도권	8,352,900 (35.7%)	6,739,045 (33.7%)	4,722,381 (29.7%)	2,034,031 (27.8%)
100만 ~ 50만	2,115,790 (9.1%)	1,233,203 (6.2%)	501,471 (3.2%)	—
50만 ~ 10만	2,463,235 (10.5%)	2,141,026 (10.7%)	1,558,000 (9.8%)	327,486 (4.2%)
5만 ~ 10만	902,369 (3.9%)	337,450 (1.7%)	328,686 (2.1%)	313,948 (4.0%)
2만 5천 ~ 5만	941,252 (4.0%)	976,935 (4.9%)	581,391 (3.7%)	164,960 (2.1%)
합 계	14,775,546 (63.2%)	11,427,661 (57.2%)	7,691,929 (48.5%)	2,840,425 (38.1%)

자료: Ferraro, 1973 : 64.

아주 역설적인 공간 변화의 동질성이 보여진다. 농업 위주의 시기나 공업위주의 시기나 공히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해안 지역으로의 지속적 성장이 목도되었다. 공간 변화의 관점에서 보아 서로 다른 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두 산업이 (즉, 도시화를 가속화시키는 공업화와 인구분산을 통해 도시화를 억제하는 농업) 공히 특정 지역으로의 가속적 인구집중이라는 동질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해외 시장 의존형 농업이 인구의 도시 집중을 유발시킨 메카니즘은 이미 설명되었다. 수입 대체형 산업화가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것은 로버츠가 설득력있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변부 국가의 도시 중산층을 위주로 한 소비 형태가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본 집약적 내구성 소비재에 치중하는 한 수위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은 많은 주변부 국가에 있어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Roberts, 1976), 아르헨티나에 있어 폐론의 민중주의는 정치적 목적으로 고임금의 도시 노동계층을 창출해 냈으며 유효 수요의 구매력 집단이 모여있는 수위 도시에 또 다시 내수 시장을 겨냥한 산업구조가 정착하게되어 수위도시 집중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농촌의 대자본에 의하여 도시로 내몰려진 인구가 1930년대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인 산업화의 정책 추진과 정치적 정당성 획득의 한 수단으로서 이용되어 더욱 더 수도권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로 집중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산업의 자본 심화현상으로 제조업 부분의 노동력 인구 증가가 아닌 도시 비공식 부문 또는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기형적으로 급증하는 주변부 국가의 도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 (5)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재 편입 시기(1970~)

민중주의 발전 전략에 있어 가장 극명한 미연결고리(missing link)는 농촌 부분이었다. 탈 종속을 외치며 시작된 수입 대체화 산업화의 기반이 농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기간동안 시도된 발전 전략은 농업의존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아주 모순적인 정책에 기초해 있었다. 한마디로, 민중주의 발전전략은 산업화 기간동안 농촌사회 권력구조의 재편없이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산업화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요당하였던 것이다. (Wynia, 1984: 155)

당연한 귀결로서 아르헨티나가 1970년대 이래 취한 발전 전략은 일대 채도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물론 1973년 폐론이 78세로 권자에 재복귀한 이후 1976년까지의 짧은 기간동안 기존체제로의 재복귀 시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찻잔속의 폭풍으로 끝나고 1976년 군사 쿠데타 이후 아르헨티나는 악명 높은 권위주의적 군사독재하에서 암흑기에 돌입한다. 즉,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군사독재가 경제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재편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외개방(apertura económica)이 시작된 것이다.

재정, 금융, 시장정책등 거의 모든 면에서 대외 지향적 효율성 우선의 정책은 공간변화의 관점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민중주의 발전전략하에서 목도되었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및 산업 집중은 1970년대 이래 그간 정체되었던 제 2지역과 제 3지역의 상대적 중요성 증가와 그간 발전의 축이었던 제 1지역의 상대적 침체로 전환되어 나갔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 총생산에 있어 제 1지역이 점하는 비중은 1980년 까지도 비록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며 성장율도 전국적 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일인당 지역별 총생산에 있어서도 제 1지역은 성장률 및 절대치 모두에 있어서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 2지역은 70년에서 80년 기간동안 성장율이 4.3%로서 전국평균 2.5%를 훨씬 웃돌고 있으며 일인당 지역별 생산 증가율에 있어서도 까따마르까(Catamarca)와 후우이 (Jujuy)의 60%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주가 전국 평균 7.8%를 무려 3배 가량 (23.2%) 넘고 있다. 한편 빠따고니아(Patagonia)를 중심으로하는 제 3지역은 비록 그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매우 미약하지만 전국 최고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70년에서 80년사이 성장률 6.6%는 전국 평균 2.5%를 2배이상 웃돌고 있으며 일인당 지역별 생산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국평균 7.8%의 4배 가까운 29.8%를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은 공간적 균형발전을 향한 일련의 현상들은 몇가지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다. (Manzanal y Rofman, 1989: 17-20) 첫째, 아르헨티나에 있어 산업활동의 입지변경이 공간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츄브뜨 주로의 섬유공업이전, 뚜구만주로의 자동차 공장이전, 꼬리엔떼스의 면화산업등이 좋은 예이다. 둘째, 기존 발전지역의 공간적 포화 상태가 여타지역으로의 산업 이전 및 새로운 성장을 유발하였다. 특히, 특정지역으로의 지속적 산업 및 인구집중은 이 지역의 지가를 상승시켜 새로운 산업이 입지하기에 부적절하게 되었다. 셋째, 그간 발전에서 전통적으로 제외되었던 제 3지역(파타고니

(표 7) 아르헨티나의 지역별 총생산 분포, 연중 성장률 및 일인당 지역총생산 변화추이 (1970 - 1980)

지역	지역 총 생산 (PBG) * 중 비중				연간 성장율 일인당 PBG 변화		
	1970	1975	1980	70/75	75/80	70/80	70/80
제1지역	82.4	80.7	78.2	3.0	1.0	2.0	4.4
수도	29.0	28.3	26.3	2.9	0.2	1.5	19.1
Bs. Aires	33.6	32.8	30.9	2.9	0.4	1.7	- 4.1
Cordoba	6.7	7.0	7.4	4.4	2.9	3.6	22.1
Mendoza	4.2	4.1	4.2	2.6	2.6	2.6	5.7
Santa Fe	8.9	8.5	9.4	2.6	3.6	3.1	17.8
제2지역	14.1	15.3	16.6	5.3	3.3	4.3	23.2
Catamarca	0.3	0.4	0.5	8.1	5.6	6.9	62.0
Corrientes	1.4	1.4	1.4	3.8	1.6	2.7	12.1
Chaco	1.0	1.1	1.2	4.4	4.4	4.4	26.1
Entre Rios	2.6	2.2	2.6	0.4	4.5	2.5	14.7
Formosa	0.4	0.6	0.4	7.7	- 3.5	1.9	- 3.3
Jujuy	0.8	1.1	1.3	10.7	5.2	8.7	63.1
La Pampa	0.8	0.7	0.8	2.7	3.4	3.0	12.0
La Rioja	0.2	0.3	0.3	9.9	- 0.2	4.7	31.9
Misiones	0.8	1.2	1.2	12.9	1.2	6.9	48.6
Salta	1.3	1.2	1.5	2.4	6.0	4.2	14.1
San Juan	0.9	0.9	1.0	5.0	2.5	3.8	18.5
San Luis	0.5	0.6	0.6	4.6	2.3	3.4	21.1
S. del Estero	0.9	0.9	1.0	4.9	3.5	4.2	14.1
Tucuman	2.2	2.7	2.8	7.6	2.9	5.2	31.1
제3지역	3.5	4.0	5.2	6.2	7.0	6.6	29.8
Chubut	1.1	1.2	1.7	3.5	10.3	6.9	40.5
Neuquen	0.7	1.0	1.2	10.9	5.8	8.3	41.6
Rio Negro	1.0	1.1	1.3	5.1	4.4	4.7	9.1
Santa Cruz	0.6	0.6	0.8	5.8	6.7	6.2	36.1
T. del Fuego	0.1	0.2	0.2	13.8	6.3	10.0	34.2
전 국	100	100	100	3.2	1.9	2.5	7.8

\* PBG(Producto Bruto Geografico)는 지역별 총생산을 나타냄

\* 자료: Manzanal y Rofman, 1989: 18

아를 중심한 남부 지역)에서의 자연자원 개발(가스 및 석유등의 광물자원)이 이지역의 공간변화현상을 유도 하였다. 넷째,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반 국가 시책도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실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아래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공간 변화 현상은 역시 아르헨티나가 경험한 보다 커다란 정치, 경제, 사회적 변동에서 더욱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민중주의 정권과 그 연장선상에서 추구되어 왔던 수입 대체화 발전전략이 효율성 위주의 자본축적에 근거를 둔 대외 개방 경제정책(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적극적 재편입)으로 바뀌면서 각 단계별 발전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 제 세력간의 권력 변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다시금 공간 변화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입대체화 산업화에 근거한 발전전략은 도시 중산층의 복지향상 및 도시 노동계급의 동원에 의한 정치적 정당성획득에 근거한 관계로 국가, 조직화된 도시 노동계급, 국내 자본가 계급으로 구성된 민중주의 연합(populist alliance)이 권력구조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초기 수입대체화 산업화의 애로현상이 나타나면서 산업 구조의 심화현상(deepening of industrialization)이 초래되어 도시 노동계급 대신 다국적 기업으로 구성된 해외 자본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른바 에반스 (Peter Evans)가 이야기하는 3자연합(triple alliance) (국가, 국내 자본, 해외 자본)이 출현되는 것이다. (Evans, 1979) 당연한 귀결로서 산업의 탈국유화(denationalization) 및 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의 피해자는 민중연합하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도시 중간 계급과 중·소규모의 국내 자본이었다. 시장개방과 산업의 탈 국유화로 인하여 그간의 높은 관세보호와 독점적 국내시장은 서서히 무너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의 일차적인 공간적 여파는 주로 제 1지역에 밀집하여 있던 국내 산업의 “상대적 탈산업화”(relative deindustrialization)로 나타나게 된다. (Manzanal y Rofman, 1989: 45) 아울러 아르헨티나 경제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적극적 편입은 해외자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산업화 (또는 산업구조의 위계질서화)라는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수반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선별적 남미화로 특징 지울 수 있는 이러한 산업구조 재조정은 (Fajnzylber, 1990) 아르헨티나의 경우 기존의 발전 전략 뿐 아니라 국토 공간 변화에도 많은 함축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즉, 그간 제 1지역(특히 수도권 및 그 주변 지역)에 치중되어 있던 기존의 발전 산업(금속 기계 및 식품산업 등)은 새로이 부상하는 여타지역에서의 산업화(중화학 공업, 제지업 및 자연자원 추출산업 등)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 구조 재조정의 공간적 여파를 산업화 정도의 측면에서 70년대와 80년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Manzal y Rofman, 1989: 46)

#### \* 70년대

1. 산업화된 지역 : Buenos Aires, Cordoba, Santa Fe
2. 농업에 기초한 산업화 지역 : Corrientes, Chaco, Entre Rios, Jujuy, Mendoza, Misiones, Rio Negro, Salta, San Juan, Tucuman
3. 비산업화 저개발 지역 : Catamarca, Chubut, Formosa, La Pampa, La Rioja, Neuquen, San Luis, Santa Cruz, Santiago del Estero, Tierra del Fuego,

## \* 80년대

1. 탈 산업화 지역 : Gran Buenos Aires (GBA: 수도권), Cordoba, Santa Fe
2.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새로운 산업화 지역: Buenos Aires, Chubut 및 Misiones 주의 일부
3. 개방화정책에 따른 산업화 지역: Catamarca, Chubut, La Rioja, Neuquen, San Luis, San Juan, Tierra del Fuego.
4.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초한 산업화 지역: Corrientes, Chaco, Entre Rios, Jujuy, Mendoza, Rio Negro, Salta, San Juan, Tucuman
5. 비 산업화 지역 : Formosa, La Pampa, Santa Cruz, Santiago del Estero

이상과 같은 산업의 구조적 재편에 더불어 농업부문도 상당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전반적으로 보아 농업부문이 아르헨티나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총 생산부분에서나 경제활동 부분에서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표 8> 아르헨티나 농업의 중요성 변화 (1960. 1980)

농목축업의 비중	1960(%)	1980(%)
국내총생산중 비중	16.6	12.6
총 수출중 비중	96.6	73.4
경제활동 인구중 비중	18.0	12.0

자료: Manzanal y Rofman, 1989: 32.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떠오르는 지역별 추세는 팜파지역 농업의 발전전략적 중요성 증가와 여타 지역 농업의 주변화(marginalization)로 집약될 수 있다. (Manzanal y Rofman) 팜파지역과 팜파 주변지역에서 (La Pamap, Entre Rios, San Luis)에서 주로 생산되는 6대농산물인 콩, 밀, 아마, 옥수수, 해바라기, 수수 중 주로 팜파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밀, 옥수수는 1980년의 경우 전체 농업 수출의 52% (이는 아르헨티나의 제조업 수출액과 맞먹으며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25%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다.)에 이르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농업의 지역적 분포에 따른 차별적 성격 증가는 또한 구조적인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자본주의적 기업농과 가족농의 형태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가고 있으며 농업에 있어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 (즉, 기업농)에 유리한 쪽으로 파생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어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비농업인구가 농촌 빈곤층을 경제적으로 보조해야만 하는 E.C.형의 농촌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Crossley, 1983:431)

이상과 같은 70년대 아래의 농업 및 산업 구조의 변화가 가지는 공간적 합축성은 대

략 2가지 정도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는 아르헨티나 도시 지역의 뚜렷한 3차 산업화 경향이다. 농업과 산업의 자본 집약화 및 대외 개방화는 결국 비 생산적 3차산업을 이상적으로 비대화시켜 보험, 금융, 부동산 등 거품경제의 징후가 뚜렷한 부문의 국내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6.9%에서 1980년 12.7%로 뛰어 올랐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Manzanal y Rofman, 1989: 49. Cuadro 9)

둘째는 전국적 수준에 있어서의 가속적 도시화 현상 및 국토의 균형적 성장 조짐이다. 1970년대 이전의 경우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주로 제1지역내의 대도시 위주 (인구 50만 이상)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인구 10만 미만의 중간급 소도시는 매우 미진한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기존의 대도시보다는 각 주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급 도시의 성장율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Manzanal y Rofman, 1989: 53-57. 특히 Cuadro 13 참고) 즉, 197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에 있어서 인구 이동적 측면에서 살펴본 도시화의 특징은 70년대 이전 수입대체화 산업화 시기에 보여졌던 농촌 → 중간급 도시 → 대도시가 아니라 농촌 → 중간급 도시 (주로 주의 수도)로 인구 이동의 단계가 축약된 형태로 나타나 수도권 및 대도시의 인구 집중이 억제된 반면 중간급 도시가 골고루 성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간급 도시의 자생적이고 궁정적 균형 발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도시가 수입 대체화 산업 시기에 보여 주었던 각종 경제적 매력의 상실로 부터 유추 될 수 있는 소극적 균형 발전의 조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하여, 1970년대 후반이후 아르헨티나의 지역 균형 발전문제는 매우 양면적이면서도 중요한 분기점의 국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지역 불균등발전을 배태시켜왔던 제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가 바뀌면서 그간 발전에서 제외되었던 지역들의 성장 조짐이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농촌 지역의 가속적 침체와 대도시권의 경제적 매력 상실이라는 반사적 성격이 짙음으로 인하여 잠재적 균형 발전이라는 단기적 궁정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 특정지역으로의 가속적 인구집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IV. 결론적 고찰

남미는 3세계국가군 중에서도 매우 일찍부터 도시화의 경험을 가져온 지역이다. 남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경제 성장 및 상대적으로 잘 교육받은 인적자원을 소유한 나라로서 발전의 잠재성이 매우 높은 동시에 가장 높은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논문에서 지적되었듯이,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비민주성, 이로부터 도출되는 극도의 공간적 불균형 발전을 아르헨티나가 경험하여 왔다는 사실은 비극적 아이러니인 동시에 매우 흥미있는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

다.

아르헨티나에 있어 지난 수 세기동안의 공간변화 양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르헨티나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접합하는 양식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세기에서 18세기동안 스페인의 역할, 19세기 및 20세기 초반에 있어 Pax-Britanica로 접약되는 영국의 역할, 20세기 들어 탈 종속을 외치며 시도된 좌절된 산업화가 가지는 구조적 제약성의 위압감, 마지막으로 새로이 미국 주도하의 세계 자본주의체제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르헨티나가 담당했던 세계경제 내에서의 역할은 확연하고도 뚜렷하게 이 나라의 공간 변화 양상을 결정지우는 외곽틀을 형성하였다.

세계경제에 있어 아르헨티나의 역할은 이 나라의 농업 및 산업활동을 양극화시켰으며 아르헨티나의 국가는 이러한 양극화에서 창출된 국내 정치 경제적 모순구조를 체내화(embodiment)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Canak, 1981:148) 즉, 국가와 사회 제세력간의 갈등관계에 있어 자본축적의 필요성과 정치적 정당성획득이라는 상호 배타적 요구조건의 동시적 수용은 꼬리다가 적절히 지적하듯 그 어느 한 세력도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거부권만은 행사할 수 있는 “부정적 다원주의”(negative pluralism) 권력구조를 창출해냈다. (Corradi, 1985: 112-113) 이러한 부정적 다원주의의 핵심요소는 도시노동계급, 농업자본, 산업자본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르헨티나 국가는 이들 계급사이의 갈등을 체내화시킬 수 밖에 없어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경험 하였던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공간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행하였던 내적 변수중 핵심변수는 결국 아르헨티나의 농업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3세계, 특히 남미의 도시연구에 있어 도시 그 자체보다는 비이상적으로 산업화된 도시를 잉태시킨 동인은 농촌과 도시의 접합양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익히 제기되어 왔다. (Edel, 1981:167 & Portes and Canak, 1981)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도시 및 지역문제 연구소”(CEUR: Centro de Estudios Urbanos y Regionales)를 중심으로 한 도시문제 연구가에 의하여 도/농간의 접합관계가 공간변화에 끼친 영향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면, Balan, 1979; Manzanal, 1983; Manzanal y Vapnarsky, 1986 외 다수)

아르헨티나의 경우 농업의 역할(좀 더 정확히 말하여 농업부문의 계급구조)은 아르헨티나의 발전에 있어 막강한 추진력이었던 동시에 또한 장애물이었다. 페루나 멕시코 등 여타 남미국가에서와 달리 아르헨티나는 토착 원주민을 중심한 농민계급이 부재하였던 관계로 혁명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토착 백인 지주계급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팜파지역을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편입하는 동시에 아르헨티나가 농산물 세계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농촌의 엄청난 생산력과 잉여가치의 생산은 공업화의 주된 원천이기도 하였다.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농업자본은 그 배타적 성격으로 인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농업의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인구를 도시로 내몰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산업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까지는 산업화에 긍정적 효과를 끼쳤으나 (초기 수입 대체화 산업화의 주된 배후는 농업자본이었다.) 농산물 잉여가치의 산업으로의 이전에는 강력한 저

황을 제기하여 극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 즉, 농업 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이전에 있어 아르헨티나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며 바로 이 점에 있어 폐론의 민중주의 발전전략은 문제의 핵심을 회피한 것이었다.

### 〈참 고 문 헌〉

#### 강명구

1990 “공간과 정치: 도시정치학의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한국 정치학회 10월 월례 발표논문

김현창, 최윤국

1990 “유럽 이민이 아르헨티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 1870- 1914,” 『아베로 아메리카 연구』 창간호 121-156.

#### 전경수

1990 “아르헨티나의 한국이민: 형성과정과 분포 경향,” 『아베로 아메리카 연구』 창간호, 157-198

Balan, Jorge

1976 “Regional Urbanization Under Primary-Sector Expansion in Neo-Colonial Societies,” in Portes and Browning (eds.) *Current Perspectives in Latin American Urban Research*, 151-179.

Balan, Jorge

1979 “Urbanizacion Regional y Produccion Agraria en Argentina,” *Estudios CEDES*, No 2.

Berry, Brian

1981 *Comparative Urbanization:Divergent Paths in the Twentieth Century*. St. Martin's Press.

Bienen, Henry and Danielson, Michael N.

1978 “Urban Political Development,” *World Politics*, 246- 295.

Blakemore, Harold and Smith, Clifford T. (eds.)

1983 *Latin America: Geographical Perspectives*. London:Methuen.

Canak, William

1981 “City and Class in Latin Americ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6(3):146-157

Cardoso, H.

1977 “Consumption of Dependency Theory in the United Stat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12(3). 3-39.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London: Edward Arnold

Corradi, Juan E.

- 1985 *The Fitful Republic: Economy, Society and Politics in Argentina*. Boulder: Westview Press
- Cortes Conde, Roberto and Gallo, Ezequiel
- 1967 *La formacion de la Argentina moderna*. Buenos Aires: Paidos.
- Crossley, J. Colin
- 1983 "The River Plate Countries," in Blakemore and Smith (eds.) *Latin America*. London: Methuen, 383-456.
- de Janvry, Alain
- 1981 *The Agrarian Question and Reformism in Latin America*.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 Dent, David W.
- 1986 "Past and Present Trends in Research on Latin American Politics, 1950-1980,"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1(1):139-151.
- di Tella
- 1965 La teoria del primer impacto del crecimiento economico
- Edel, Mathew
- 1988 "Latin American Cities: Recognizing Complexitie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3(1):165-174.
- Evance, Peter
- 1979 *Dependent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Fajnzylber, Fernando
- 1990 *Unavoidable Industrial Restructuring in Latin America*. Durham: Duke Univ. Press,
- Ferraro, Roque M.
- 1973 *El Desarrollo Regional Argentino*. Buenos Aires: Editorial Plus Ultra.
- Frobel, Folker and Heinriks, Juregenand Kreye, Otto
-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Goodman, David and Redclift, Michael
- 1982 *From Peasant to Proletarian* New York: St. Martin's Press.
- Hardoy, Jorge E.
- 1975 *Urbanization in Latin America :Approaches and Issues*. Garden City: Anchor Books.
- Henderson, Jeff
- 1986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nd Urban Development in the Contemporary World System," in D. Drakakis-Smith (ed.) *Urbaniz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Kent: Mackays of Chatham, 63-81.
- Kang, Myung-goo

- 1989 *Political Economy of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grarian Transition, and Spatial Change in South Korea and Mexico*. Austi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 Kentor, Jefferey  
 1981 "Structural Determinants of Peripheral Urbanizati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Depen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April):201-211.
- Manzanal, Mabel  
 1983 *Agro, Industria y Ciudad en la Patagonia Norte*, Buenos Aires: Ediciones CEUR
- Manzanal, Mabel y Clichevsky, Nora  
 1988 *Estado de la Investigacion Urbana en la Argentina: Sus Perspectivas*. Buenos Aires:Centro de Estudios Urbanos y Regionales
- Manzanal, Mabel y Rofman, Alejandro B.  
 1989 *Las Economias Regionales dela Argentina:Crisis y Politicas de Desserrollo*. Buenos Aires:Centro de Estudios Urbanos y Regionales
- Manzanal, Mabel y Vapnarsky, Cesar A.  
 1986 "The development of upper valley of Rio Negro and Neuquen and its periphery," in Jorge E. Hardoy and David Satterthwaite (eds.) *Small and Intermediate Urban Centers*, Sevenoaks: Hodder & Stoughton Ltd.
- Martindale, Don  
 1965 "Limits and Alternatives to Functionalism in Sociology,"
- Mills, C. Wright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New York:Oxford Univ. Press.
- Morse, Richard M.(ed.)  
 1971 *The Urban Development of Latin America:1570-1920*. Stanford Univ. Press.
- Naks, Nathan  
 1971 "Argentina," in Richard M. Morse (ed.) :22-35.
- Palma, Gbriel  
 1978 "Dependency: a formal theory of underdevelopment or a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concrete situations of under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Jul./Aug. 881-924.
- Portes, Alejandro and Browning, Harley L.  
 1976 *Current Perspectives in Latin American Urban Research*. Austin: Univ. of Texas Press.
- Portes, Alejandro and Canak, William  
 1981 "Latin America:Social Structures and Sociology," *Annals Review of Sociology* 7: 225-248
- Procter, Ian

- 1982 "Some Political Economies of Urbanization and Suggestions for a Research Framework," *International J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6 (11):83-97.
- Roberts, Bryan  
1978 *Cities of Peasants: Political Economy of Urbanization in the Third World*. Bervely Hills:Sage Pub.
- Rofman, Alejandro  
1979 "Notas teorico empiricas sobre el proceso de desigualdades regionales en la Argentina," *Boletin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no. 27.
- Schoenberger, E.  
1988 "From Fordism to Flexible Accumul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 245-262.
- Scobie, James R.  
1971 *Argentina : A City and a Nati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 Silverman, Bertram  
1969 "Labor Ideolog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eronis Epoch,"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4 (11)
- Skidmore, Thomas and Smith, Peter H.  
1984 *Modern Latin America*. New York:Oxford Univ. Press.
- Slater, David  
1978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urbanization in peripheral capitalist societies: problems of theory and method with illustrations from Latin America," *International J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1):26-52.
- Timberlake, Michael  
1985 *Urbanization in the World Economy*. Orlando:Academic Press.
- Vapnarsky, Cesar A.  
1975 "The Argentine System of Cities: Primacy and Rank Size Rule," in Hardoy (ed.) *Urbanization in Latin America*. Garden City:Anchor Books 369-390.
- Waisman, Carlos H.  
1986 "Population and Social Structure in Argentina,"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1(1): 256-265
- Walton, John  
1981 "The New Urban Sociology," *International Jl. of Social Science*. 33(2): 374-390.
- Wynia, Gary  
1984 *The Politics of Latin American Development*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Development and Spatial change : The Case of Argentina

Myung-goo Ka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patterns of, and to analyze the reasons of spatial change (in terms of urb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Argentina by employing political economy approach. Underlying this purpose i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the pattern of spatial change in Argentina.

The article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one is devoted to the theory-building on Latin American urban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Here, emphasis is pu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fic pattern of industrialization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nd the concomitant agrarian change on the one hand, the resulting pattern of spatial change, on the other. In the second part of article, to analyze the Argentine situation the above-mentioned theoretical framework is employed. Historical background of un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namely, highly-developed Pampa area versus the underdeveloped extra-Pampa area) and urban concentration (especially on the burgeoning metropolitan area of Buenos Aires) is explained by referring to the role of Argentina imposed by the changing demands of international capitalist system on the one hand, and the embodiment of those demands through the changing patterns of state policy (including the changing role of the Argentine state and socio-political class formation) on the other.

According to the analysis, current pattern of Argentine urban system is already crystallized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through the increased importance of Agrarian export production system in Pampa area (especially, rural socio-economic system based on the hegemony of Pamap bourgeoisie). Also, ensuing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after the thirties depended more on capital-intensive (rather than on labor-intensive) methods and this pattern of industrialization increased the urban concentration furthermore mainly due to the populist socio-economic policies during the Peronista era.